

온열팩·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산업부, 겨울철 수요 많은 16개 수입품목 검사 인증 미획득·표시사항 허위 기재·기준치 초과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시사항 허위 기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4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용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강진소방, 대규모 건축물 인명·재산 피해 우려대상 안전컨설팅

강진소방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대규모 건축물로 인명, 재산 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관서장 현장방문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감동의 증마산타'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 받아

광양소방서는 증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광양소방서에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소방, 유월드 내 케도시설(리프트) 인명구조훈련

여수소방서는 여수시 소라면 소재 유심천 유월드에서 구조대원,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도시설(리프트) 안전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지도점검

광주 동부소방서는 성탄절 및 연말 연시 화재취약시설을 대비하여 관서장 지도 점검을 최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잠수 동호회 설립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와 잠수 동호회(Scuba Police)를 발대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폭설로 훼손된 교통환경 개선

나주경찰서는 지난 폭설로 훼손된 나주 관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홍보에 힘써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BA.5변이 검출률 50% 밑으로...148일만에 '우세종' 마감

BN.1 변이 검출률은 24%...우세종 세대교체 뚜렷 주간 위험도 9주째 '중간'... "병상가동 여유 고려"

지난 8월부터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었던 BA.5 변이가 우세종 수준에서 내려왔다. 반면 BN.1 등 다른 변이가 새로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A.5의 검출률은 46.1%, 국내 감염에서는 49.9%, 해외 유입에서는 24.3%로 나타났다.

당국은 국내 감염에서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간 우세종 지위를 유지했던 BA.5의 검출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주간 위험도 발표일 기준, 지난 8월2일 BA.5가 우세종이 된 이후 148일 만이다.

반면 BN.1은 전체 검출률이 24.4%, 국내 감염에서도 검출률이 24.2%로 나타나 BA.5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국내 감염에서 BN.1의 검출률은 11월 5주 11.6%에서 3주 만에 12.6% 포인트 증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난 10월 4주 이후 9주째다.

임 단장은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중·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3.5% 증가한 47만1250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7321명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이상을 10주 연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직전 주 4.4%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7.11%로 직전 주 15.87%보다 증가했다. 지난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 2706만3307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3.53%인 96만975명이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전주대비 20.7% 감소했으며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13.8% 증가한 528명이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35.0%로 7주 연속 30%를 유지하고 있다.

임 단장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고 난 이후 2~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위중증 환자 발생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향후 2~3주 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있고, 검사 기피 현상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병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2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중증화 위험이 76.6%, 사망으로 갈 위험이 80.5%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36.6%로 전주대비 1.2% 포인트 감소했다.

임 단장은 "주별로 어느 정도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경향성으로 봤을 때 처방률이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시장 수요량을 파악한 결과 통상적인 시장 공급량인 200만 명분 대비 현재 유통량은 약 146만 명분으로 나타나 시장 유통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023년 1월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

비정규직 이계 그만 공동투쟁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흥회관 앞을 출발해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불법 성 영상물·영화 26만편 유포...3명 검거

해외에 서버 구축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만편의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해 약 6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사이트 15개를 구축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 등 26만여편의 콘텐츠를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 불법 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로 수익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아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를 대가로 2억 2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운영자인 B(40대)씨 등 2명은 A씨가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를 유포했고, 사이트에 도박 광고 등을 게시해준 대가로 광고 스폰서로부터 3억 7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구축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15개의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일당을 검거해 이중 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15개는 모두 폐쇄 조치됐다.

뉴스

“코로나 입원·격리자, 내년에도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 4만5000원

코로나19 확진·격리 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에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30인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만5000원으로 최대 5일간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

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의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